



《크리스마스 캐럴》 독서지도안



찰스 디킨스 글 | 이아코포 브루노 그림 | 원문: 김연진 옮김

교과연계

5~6학년 [국어] 독서 단원
5학년 1학기 국어-가 1.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6학년 2학기 국어-가 1. 작품 속 인물과 나

주제어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구두쇠 #찰스디킨스 #영국문학
#생생한묘사 #사랑 #빈곤

독서지도안

오수연 선생님(서울 방현초등학교)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수업 계획안

단계	활동 내용	차시
독서 준비	<p>책 내용 짐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마스 캐럴> 듣고 불러 본 뒤 소감 나누기 ·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경험 이야기하기 · 제목과 삽화, 차례 보며 내용 예상하기 	1차시
독서 활동	<p>즐거리 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그물로 등장인물과 즐거리 정리하기 	1차시
	<p>《크리스마스 캐럴》속 장면 꾸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 《크리스마스 캐럴》속 몸 조각 만들기 · 영화, 뮤지컬 등으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캐럴》장면과 비교하기 	2차시
	<p>나도 찰스 디킨스처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마스 캐럴》속 거리 풍경 묘사를 다시 읽고, 이야기 속 장면을 꾸밀 수 있었던 이유 떠올려보기 · 묘사 방법 알기 · 사진 속 인물 혹은 배경을 글로 자세히 묘사해 보기 	1차시
독서 후	<p>나, 너, 우리가 행복한 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너, 우리를 고려한 행복한 지출 계획 세우기 	1차시
	<p>가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난의 원인과 해결 방법 토의하기 	2차시

1차시 활동 : 책 내용 짐작하기

1. 여러 가지 캐럴을 듣고 따라 불러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

~~~~~

~~~~~

~~~~~

~~~~~

2.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나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경험을 나눠 봅시다.

~~~~~

~~~~~

~~~~~

~~~~~

~~~~~

3. 제목과 삽화, 차례를 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분위기일 것 같나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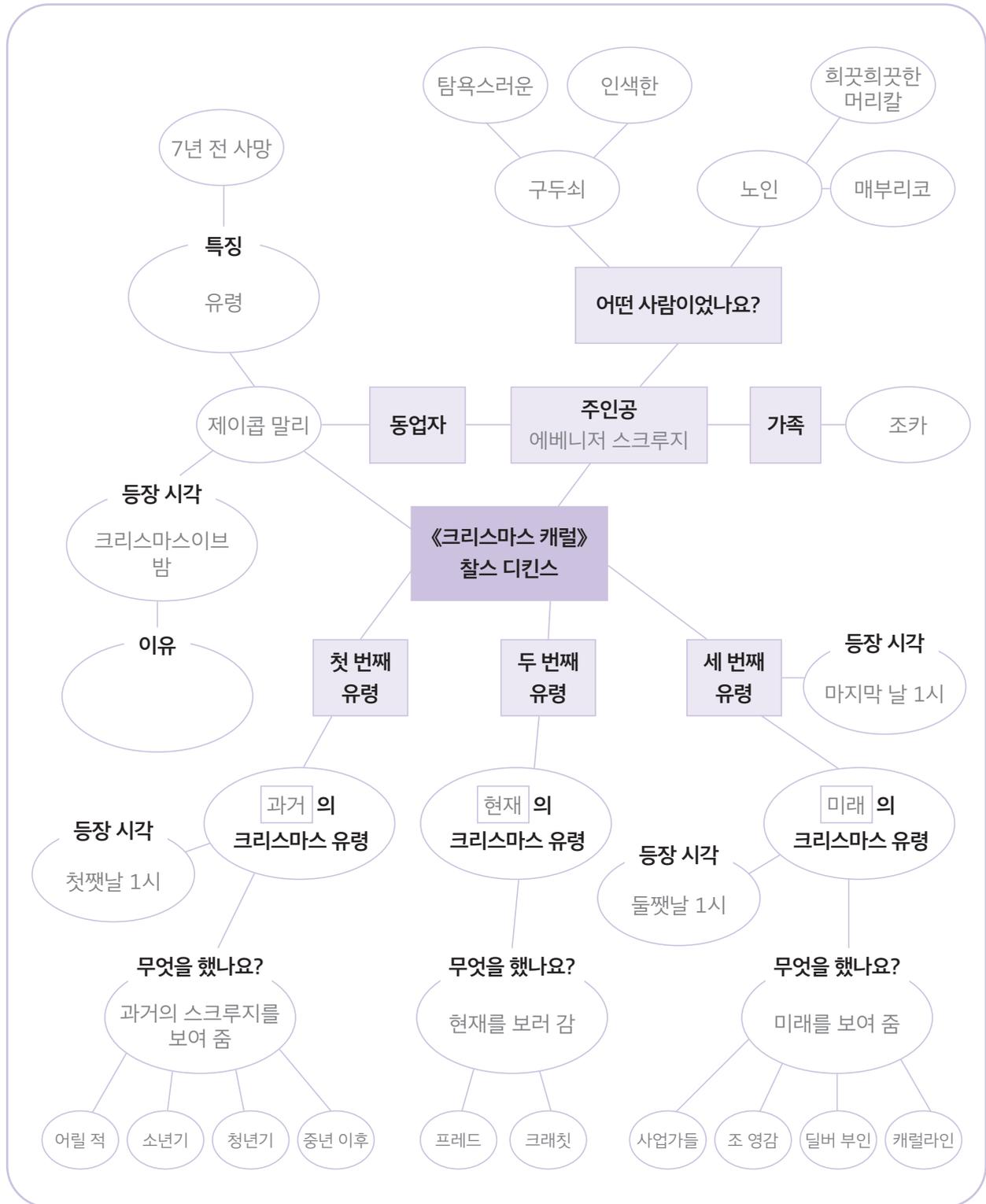
~~~~~

~~~~~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각자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12월 말의 날씨가 겨울의 모습, 뉴스에서 전해지는 내용 등을 활용하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모습이나 느낌을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 2차시 활동 : 줄거리 정리하기

1. 생각그물을 통해 《크리스마스 캐럴》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정리해 봅시다.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등장인물이 특성이나 이야기 속 사건을 생각그물로 정리하며 줄거리를 복기합니다. 각 장이나 장면별로 스크루지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로 그려 보는 활동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 3~4차시 활동 : 《크리스마스 캐럴》 속 장면 꾸미기

### 1. 《크리스마스 캐럴》 속 장면을 몸 조각으로 만들고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 1) 5개의 모듬을 만든다. 각 모듬은 《크리스마스 캐럴》의 1~5장을 나누어 맡는다.
- 2) 모듬원 중 1~2명은 조각가가 되고, 나머지는 조각의 재료인 진흙이 된다. 진흙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조각가에게 몸을 맡긴다.
- 3) 조각가는 자신의 모듬이 맡은 장 속 장면 중 한 장면을 떠올린 후 진흙 친구들의 팔, 다리, 손을 움직여 장면을 꾸민다. 형태가 만들어지면 얼굴의 표정을 부탁해 섬세함을 더한다.
- 4) 조각가는 만들어진 조각 친구들에게 자신이 취한 몸짓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묻고, 조각은 특정한 장면, 인물, 느낌 등이 떠오르면 “예.”라고 대답한다.
  - 조각이 “예.”라고 대답한 경우 : 조각가는 조각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기분인지 등을 묻는다.
  - 조각이 “아니요.”라고 대답한 경우 : 조각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각의 자세를 표현하고 떠오르는 책 속 장면이 있는지 묻는다.
- 5) 각 모듬이 만든 조각상을 보면서 조각품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과 인물의 특성은 무엇인지 맞춰 본다.
- 6) 장면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각의 어깨를 살짝 건드려 얼음에서 풀려나게 하고, 풀려난 조각상들이 장면 속 인물로서 대사를 한마디 하거나 즉흥 대화를 나누어 구체적인 상황을 만든다.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진흙 친구들의 손, 팔, 다리 외의 신체 접촉을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원하는 동작을 직접 보여 주는 방식으로 조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막대나 천 등 간단한 도구를 조각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 표현된 장면을 실제 몸동작으로 표현했을 때, 그 장면을 감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 2. 《크리스마스 캐럴》은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각 작품을 찾아 보며 어떤 장면을 나타낸 것인지 이야기해 보거나, 여러분이 만든 장면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참고 영상** 애니메이션 〈스크루지 : 크리스마스 캐럴〉 예고편(넷플릭스) <https://youtu.be/tZylTiyaWV8>  
〈크리스마스 캐럴〉 브로드웨이 뮤지컬(유튜브) [https://youtu.be/OkCivDFzj\\_0](https://youtu.be/OkCivDFzj_0)  
2022년 찰스 디킨스 페스티벌(유튜브) <https://youtu.be/YDyymGOzBqk>

## 5차시 활동 : 나도 찰스 디킨스처럼!

1.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고 이야기 속 장면이 생생하게 느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의 장면을 다시 읽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스크루지는 맷돌 손잡이를 짝 움켜쥔 손아귀처럼 뻣뻣한 구두쇠였다! 스크루지! 고혈을 쥐어짜듯 돈을 받아내고, 거짓말로 등쳐 먹고, 동전 한 닢까지 집요하게 싹싹 긁어 가는,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죄 많은 늙은이! 쇠붙이로 아무리 때려도 불꽃 하나 일지 않는 부싯돌처럼 모질고 매정한 데다, 입 다문 조개처럼 문을 꼭 닫고 혼자 지내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도무지 모를 음험한 인간!

내면의 냉혹함 때문인지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 갔다. 매부리코는 더 꼬부라졌고, 뺨은 더 쪼글쪼글해졌고, 걸음걸이는 더 뻣뻣해졌다. 거기다 핏발 선 눈과 얇고 푸르딩딩한 입술, 약삭빠르게 내뱉는 쉿소리까지. 머리, 눈썹, 턱수염에는 희끗희끗한 서릿발이 앉아 있었다. 언제나 냉기를 몰고 다니기에 삼복더위에도 사무실은 서늘했다. 온정 넘치는 크리스마스 때마저도 실내 온도가 단 1도도 올라가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외부의 열기와 추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따뜻한 날씨에도 포근함을 못 느꼈고, 추운 겨울에도 쌀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살갓을 에는 바람보다 매섭고, 평평 쏟아지는 눈보다 집요하며, 장대 같은 빗줄기보다 무자비한 남자였다. \_본문 14~15쪽에서

……방과 붉게 타오르던 난롯불도 사라졌고, 캄캄한 밤 역시 종적을 감추었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크리스마스 아침이 된 도심 한복판에 서 있었다.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지붕과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다. 힘겹지만 경쾌하게 눈을 긁는 소리는 기분 좋은 음악처럼 들렸다. 눈덩이가 떨어지면서 작은 눈보라가 일어날 때마다 사내아이들은 기뻐 날뛰었다.

지붕과 길거리에 쌓인 하얀 눈 때문에 집집의 대문과 창문은 더욱 시커멓게 보였고, 짐수레와 마차의 묵직한 바퀴가 눈더미를 밟고 지나가며 깊은 골을 새겼다. 큰길이 갈라지는 곳에서는 녹은 눈과 바퀴 자국이 뒤엉켜 진창이 되었다.

하늘은 몹시 우중충했다. 마치 영국의 모든 굴뚝에 불을 피워 연기를 마구 뿜어내듯 거무튀튀한 입자들이 공중에 떠돌았다. 가까운 거리마저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다. 날씨든 생활이든,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는 듯이 보이는 겨울날이었지만, 여름날의 맑게 갠 공기와 눈부신 태양이 전혀 부럽지 않을 만큼 사방에는 흥겨움이 넘쳐흘렀다.

지붕 위에서 눈을 털어내는 사람들도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이따금 난간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장난삼아 눈덩이를 던지기도 했다. 눈덩이가 상대방을 맞으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설령 못 맞히더라도 큰 소리로 웃어 댔다. \_본문 82~83쪽에서

1) 위 장면에서 인물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 표시해 봅시다.

2) 위 장면에서 날씨를 알 수 있는 낱말을 찾아 표시해 봅시다. 그 날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에는 밑줄을 그어 봅시다.

3) 위 장면에서 공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 표시해 봅시다.

2. 찰스 디킨스는 다양한 형용사와 비유 등을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캐럴》 속 인물과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빛깔, 감촉, 냄새, 소리, 맛 등의 특성이나 인물의 행동, 심리, 성격, 상황 등을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쓰는 방식을 ‘묘사’라고 합니다. 묘사하는 글을 쓰기 위해 다양한 표현을 떠올려 봅시다.

| 인물의 외형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말                | 빛깔을 표현하는 말                        |
|------------------------------------|-----------------------------------|
| 매부리코, 턱수염이 난, 머리카락이 긴, 근육질의        | 붉은, 하얀, 푸르덴덴한, 희끗희끗한, 우중충한, 거무튀튀한 |
|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                     | 소리를 표현하는 말                        |
| 인색한, 활발한, 집요한                      | (목소리 등이) 거친, 얇은, 맑은, 딱딱한, 부드러운    |
|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                    | 맛을 표현하는 말                         |
| 정신없이 허둥대다, 얼굴이 빨개지다, 큰 소리로 웃다, 날뛰다 | 구수한, 담백한, 맹맹한, 칼칼한, 심심한, 씹쓰레한     |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학생들이 묘사하는 말을 떠올리기 힘들어하는 경우, 사진을 활용하여 떠오르는 말을 교사와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3번 활동에서는 각각을 종합하는 연습을 합니다.

3. 그림이나 인물 사진 또는 배경 사진을 관찰하고 글로 자세히 묘사해 봅시다. 2에서의 표현들을 활용하여 관찰한 사실을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먼저 써 보세요. 읽는 이가 글만 보고도 그림이나 사진을 상상할 수 있도록 써 봅시다.

<연습 1> 적당한 인물(표정이나 의상, 외모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동물(화려한 곤충 등), 풍경, 명화 등의 사진을 넣어 주세요.

1.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색, 모양, 닳은꼴을 써 봅시다.

~~~~~  
~~~~~  
~~~~~

2. 왼쪽 그림과 같은 장면에서는 어떤 소리, 냄새, 맛, 감촉이 날 것 같은지 상상해 써 봅시다.

~~~~~  
~~~~~  
~~~~~

3. 왼쪽 그림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써 봅시다.

~~~~~  
~~~~~  
~~~~~  
~~~~~

4. 위에서 쓴 내용을 나열해 문단으로 써 봅시다.

~~~~~  
~~~~~  
~~~~~  
~~~~~

<연습 1> 적당한 인물(표정이나 의상, 외모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동물(화려한 곤충 등), 풍경, 명화 등의 사진을 넣어 주세요.

1.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색, 모양, 닳은꼴을 써 봅시다.

~~~~~  
~~~~~  
~~~~~

2. 왼쪽 그림과 같은 장면에서는 어떤 소리, 냄새, 맛, 감촉이 날 것 같은지 상상해 써 봅시다.

~~~~~  
~~~~~  
~~~~~

3. 왼쪽 그림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써 봅시다.

~~~~~  
~~~~~  
~~~~~  
~~~~~

4. 위에서 쓴 내용을 나열해 문단으로 써 봅시다.

~~~~~  
~~~~~  
~~~~~  
~~~~~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반 전체가 함께 묘사를 연습한 후 각자 다른 그림으로 묘사하는 글쓰기를 합니다. 이때 같은 그림을 묘사한 서로 다른 글을 비교해 보거나, 각자가 쓴 글을 돌아가며 발표하고 발표를 듣는 이들은 글에 묘사된 대로 그림을 그려 본 뒤 원본 그림을 확인해 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6차시 활동 : 나, 너, 우리가 행복한 지출

1. 스크루지는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돈을 쓰지 않는 구두쇠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지 않고 부자가 되었을 때보다 자신과 주변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서 더 행복해졌지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게 좋을까요? 아래 표를 활용하여 나,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지출 계획을 세워 봅시다.

|         |           |  |        |                 |       |        |         |  |
|---------|-----------|--|--------|-----------------|-------|--------|---------|--|
| 건강한 먹거리 | 취미        |  | 가족 나들이 |                 |       | 축하 선물  |         |  |
|         | 나         |  |        | 가족              |       |        | 친구들     |  |
|         |           |  |        |                 |       |        |         |  |
| 학습 준비물  | 동아리 운영비   |  | 나      | 가족              | 친구들   | 놀이터 건설 | 어린이 도서관 |  |
|         | 우리 학교     |  | 우리 학교  | 행복하게 돈 '잘' 쓰는 법 | 우리 마을 |        | 우리 마을   |  |
|         |           |  | 우리 지역  | 우리 나라           | 세계    |        |         |  |
| 대중 교통   | 지하철 엘리베이터 |  | 재난 지원  |                 |       | 환경 보호  |         |  |
|         | 우리 지역     |  |        | 우리 나라           |       |        | 세계      |  |
|         |           |  |        |                 |       |        |         |  |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짝 또는 모둠 안에서 토의하며 칸을 채우도록 합니다. 돈을 쓰는 분야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 각 분야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면 좋을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활동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 7~8차시 활동 : 가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 가난 또는 궁핍, 빈곤을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우리는 어떤 상태부터 '가난하다', '궁핍하다', '빈곤하다'라고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1) 각 모듈별로 다양한 장면의 사진 카드 15장 정도를 보고, 각자 가난, 빈곤이 연상되는 사진을 하나 고릅니다.
- 2) 돌아가면서 해당 사진이 주는 느낌과 그 사진을 고른 이유를 주고받으며, 각자 빈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 3) 모듈별로 가난, 빈곤을 4~5개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
- 4) 반 전체와 가난, 빈곤을 이루는 요소를 짚어 봅시다.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생각 나누기를 통해 빈곤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측면에서 분류되거나, 절대적·상대적·주관적 빈곤으로 나뉘기도 한다는 것을 짚어 줄 수 있습니다.

2. 빈곤이 문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기사를 읽고 빈곤은 왜 문제가 되는지, 빈곤 해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내 4위... 코스타리카·미국·이스라엘 뒤따라**  
중위 소득 50% 밑으로 생활 16.7%... 세계 압도적 1위 노인 빈곤율 탓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꼽힌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6.7%(2018년 기준)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중위 소득의 50%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1명꼴로 빈곤 위협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의 50%는 1인 가구 91만 4천 원, 2인 가구 154만 4천 원, 3인 가구 199만 2천 원, 4인 가구 243만 8천 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 미국(17.8%), 이스라엘(16.9%)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은 11.1%다.

이렇게 상대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있다. 우리나라 66살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라트비아(39%), 에스토니아(37.6%), 멕시코(26.6%)보다 높다.

우리나라 고령층 가운데 공적 연금을 받는 비율은 2018년 기준 46%로 절반이 채 안 된다. 그나마도 다른 나라와 견주어 연금 지급액이 적은 편이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로 따지는 '연금 소득 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남자는 62.9%, 여자는 62.2%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소득 대체율은 45.1%에 불과하다.

—한겨레신문, 2021. 10. 25.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6478.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6478.html))

### “배가 고파서”… 경기 불황 속 잇따르는 생계형 범죄

독거 노인 마트서 우유·흠쳐, 주운 신용카드로 도시락 샀다가 덜미

경찰 “실제 신고보다 더 많을 것”… 경미범죄심사위서 283명 감경 처분

즉결 심판 처분받아도 형편 어려워 벌금 못 내… “사회적 약자 위한 제도·관심 더 필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범죄를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잇따른다. 이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민관에서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6일 오후 경남 밀양에 사는 70대 A씨가 마트에 들어섰다. 주변을 둘러보던 A씨는 우유와 아몬드 등 1만 7천 원어치를 흠쳐 몰래 빠져나왔다. 마트 주인은 재고 정리를 하다 물품이 빈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독거 노인으로 마땅한 소득 없이 생활하다 배가 고파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에는 창원에 사는 50대 B씨가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음료수 등 5만 원어치를 샀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먹을 것이 필요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범죄가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에는 엄격한 처벌 잣대를 대기보다 선처를 통한 교화를 택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총 70번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291명 중 283명을 감경 처분했다. 이 중 형사 입건된 236명 중 229명이 즉결 심판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55명 중 54명이 훈방 조처됐다. A씨와 B씨도 생계형 범죄인 데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받아 모두 즉결 심판에서 훈방으로 감경됐다.

강봉균 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소액 생계형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며 “범죄자를 조치하는 건 기계가 아닌 사람의 몫이다. 종합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즉결 심판 처분을 받더라도 형편이 계속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이들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15명이 대출 신청을 해 115명이 도움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와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은 “무전유죄라 할 때 죄가 있다는 한자어 유(有)를 쓰지만 돈 없는 상황이 죄를 짓게끔 유혹한다는 필 유(誘)라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며 “빈곤 자체가 범죄와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상은 국가가 나서야 할 영역이다. 빈자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2023. 1. 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053664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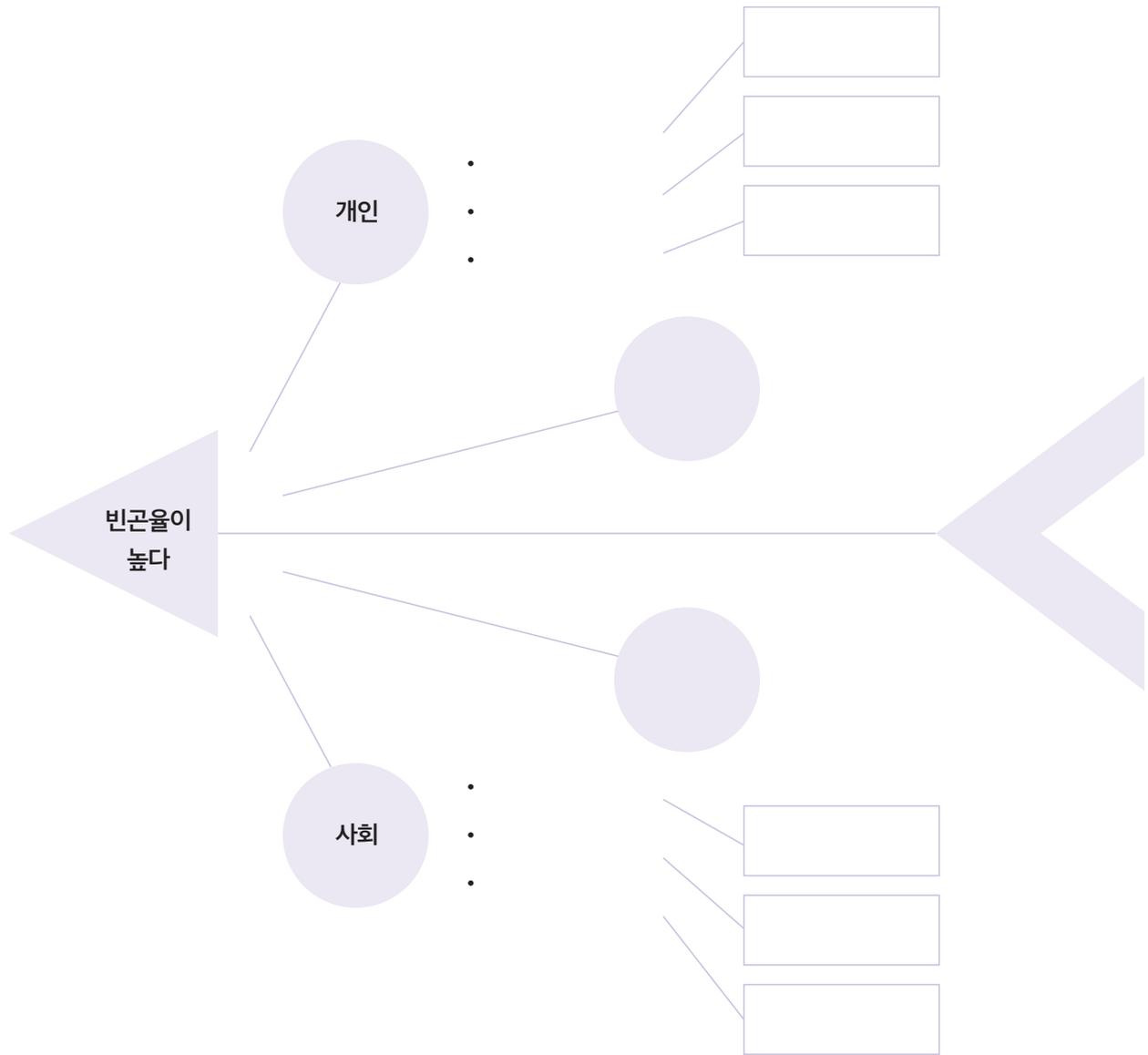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기사 내용과 함께 112~115쪽에서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떠나기 전에 보여 준 어린아이 두 명을 떠올리게 하여 빈곤에 대한 논의와 《크리스마스 캐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신문 기사는 쉬운 용어로 편집하거나, 중간중간 어려운 용어를 해설하며 함께 읽습니다. 포스트잇으로 빈곤이 이야기하는 문제를 한 장에 한 가지씩 써서 모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1, 2의 활동을 통해 빈곤에 대하여 막연한 인상을 넘어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빈곤은 건강, 교육 불이익 등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안 및 범죄 증폭, 빈곤 대물림 및 계층 갈등, 양극화로 인한 사회·정치적 갈등, 경제 성장 및 민주주의 발전 위협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3. 생선뼈 다이어그램을 통해 개인, 환경, 시설, 법, 제도 등 빈곤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 각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토의해 봅시다.



**수업에 도움이 되는 팁** ▶▶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 있는가, 사회에 있는가 하는 책임 소재 논쟁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들이 재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때, 각 개인이 재능을 기르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생각해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능 및 노력 유무가 부유함과 가난함이라는 결과에 항상 영향을 주는지, 어떤 재능과 노력이 그러한지, 그런 상관관계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영상** “〈오징어 게임〉은 한국 불평등 반영”… 상대적 빈곤율 OECD 4위(MBC) <https://youtu.be/MRz7AtwQCLg>  
 생계 급여 50만 원… 끊기 힘든 ‘빈곤 악순환’(KBS) <https://youtu.be/HtjxiuD2sdY>  
 세상의 굶주림을 없애는 진짜 방법 | 신철호 OGQ 대표(세바시 331회) <https://youtu.be/jKMTbRuGa20>